

전일동향

전일대비 7.00원 상승한 1,457.60원에 마감

9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7.00원 상승한 1,457.6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3.20원 높은 1,453.80원에 개장했다. 강달러와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주식 매도로 1,460원 선에 다가서며, 1,457.6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7.2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23.13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53.80	1461.70	1452.10	1457.60	1455.70
엔화	924.20	927.08	921.70	923.13	-	
유로화	1690.09	1700.17	1689.22	1695.81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97	-4.3	-9.64
결제환율(수입)	-0.6	-3.26	-7.64	-14.65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강달러와 엔화약세에...1,46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3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57.60) 대비 2.20원 상승한 1,458.45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강달러와 엔화약세에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12월 비농업 부문 및 신규 고용은 5.0만 명 증가해 전월(5.6만 명) 시장 예상치(7.0만 명)를 하회했으나, 실업률이 4.4%로 전월(4.5%) 대비 하락했고, 이로 인해 연준이 금리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평가가 확산되며 달러 강세가 나타났다. 또한 다카이치 일 총리의 조기 총선 검토 소식은 적극 재정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졌다. 이에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부각되면서, 엔화는 급격한 약세를 보였다. 이러한 엔화 약세와의 동조화 가능성도 원화에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존재하며, 환율 상승 압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외환 당국 경계감이 환율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점에서의 당국 및 국민연금에 대한 경계감은 상승 속도를 제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55.00 ~ 1463.33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6068.29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20원 ↑
	■ 美 다우지수 : 49504.07, +237.96p(+0.48%)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77.54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5581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